



녹색 물과 실조류 – 색이 아니라 산소와 pH가 문제입니다

h2koi.com · 2026-08-04

이 글의 요약

- 한국에서 **녹조**는 이미 하천의 유해 조류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. 연못의 녹색 물 대부분은 식물플랑크톤이며, 남조류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.
- 조류는 낮에 산소를 만들고 밤에는 코이·여과 박테리아와 함께 산소를 씁니다. 위험은 오후가 아니라 **새벽 산소 최저점**에 있습니다.
- 낮에 이산화탄소를 소비해 pH가 오르고 밤에 다시 내려갑니다. KH가 충분하면 진폭은 작고, 바닥나면 붙잡아 줄 것이 없습니다.
- **탁도만으로는 부유 조류와 흙탕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.** 장마철 유입 토사와 조류는 같은 탁도로 읽힙니다.
- 실조류는 원인도 대처도 다른 문제입니다. 녹색 물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

수온	포화 상태의 용존산소	상황
20°C	약 9 mg/L	봄·가을. 여유가 있는 편
30°C	약 7.5 mg/L	한여름 낮. 코이의 요구량은 반대로 커져 있음
35°C	약 7.0 mg/L	폭염기 앞의 연못. 여유가 거의 없음

수면에 청록색 막이 보이면 개와 아이가 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. 연못물을 마시는 반려견 쪽이 사람보다 먼저 문제가 됩니다. 걷어 낼 때는 장갑을 쓰고, 걷어 낸 것을 연못 가장자리에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.